

무주산골영화제 정체성 · 발전방향 모색

군, 추진보고회... 프로그램 다양화 · 규모확대 등 논의

무주군은 5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6.2~6.)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요와 운영 특성을 공유하고 중 · 장기 운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정수 무주군수(산골영화제 조직위원회 위원장)와 유기하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무주군의 화이대석 행정복지위원장과 전주 MBC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화제 일정과 장소, 행사규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무주산골영화제의 정체성 강화와 △규모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볼거리 · 즐길거리 강화 △홍보 강화 △의외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황 군수(조직위원회)는 "해를 거듭하며 제 색깔을 찾아가고 있는 무주산골영화제가 어느덧 4회 째를 맞는다"며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깨끗한 환경을 통해 건강을 선사하고 있는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 산골영화제를 통해 마음의 휴식까지 안겨드릴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휴양영화제를 만들어보겠다는 우리들의 각오가 이번 영화제를 통해 빛을 발하기를 바란다"며 "하늘을 지붕 삼고 자연을 울타리 삼아 영화를 볼 수 있는 곳 별빛 달빛을 벗 삼은 영화여행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무주산골영화제 뿐이라는 인식이 싹들 수 있도록 다함께 정성을 쏟아보자"고 덧붙였다.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무주군 등나무운동장을 비롯해 산골영화관과 덕유대 아영장 등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25개국에서 초청한 7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무주산골영화제 유기하 집행위원장은 "지난해에 비해 20여 편의 영화가 증편돼 무주산골영화제를 기다리고 찾아와주실 관객 여러분의 오감을 만족시켜드릴 것"이라고 했다.



설렘과 어울림 가득한 무주산골영화제 회의 모습

이어"기대를 가지고 설렘과 울림 어울림이 있는 산골 영화소풍에 동행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개최됐던 제3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는 23개국 53편의 초청작이 상영

됐으며 장건재 감독이 연출한 "한 여름밤의 판타지아"가 뉴비전상(상금 1천만 원)과 전북영화비평포럼상(상금 1백만 원)을, 임훈순 감독의 "위로공간"이 무주관객상을 수상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해외판매 위한 모바일앱 출시

'미셀라니 네트워크' 론칭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해외판매 모바일 앱 '미셀라니 네트워크(Miscellani Network)'가 출시된다.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와 해외의 고객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B2C 기반의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이다.

미셀라니 네트워크에서 오프라인 매장의 진열제품을 둘러 보듯 쇼핑할 수 있고 글로벌 결제 서비스(Paypal, Alipay)를 통해 결제도 손쉽게 이루어진다.

미셀라니 네트워크에는 유니섹스 브랜드 SALON DE SEOUL과 ZERO SECOND, 여성복 브랜드 KELLY OH, 남성복 브랜드 NAVY SCANDAL, 가방 브랜드 EKATRINA NEWYORK과 VASA, 주얼리 브랜드 ANOTHER PLANET 등 30여개 디자이너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다.

미셀라니 네트워크 회장대 대표는 "앞으로 다양한 신생 브랜드가 참여하는 꾸준한 브랜드 확장을 통해 연중 100여개 이상의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제품을 해외에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타깃시장은 최근 한류를 기반으로 한국 디자이너 패션에 대한 선호도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를 이고 점차 미국, 유럽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셀라니 네트워크의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CS 시스템은 모두 영어서비스를 구축하여 해외 고객들의 접근성도 높다. 하반기부터는 중국어 등 현지어를 점차 지원하여 보다 많은 해외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혜은 기자

'그림책의 거장' 랜돌프 칼데콧 기획전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로 칭송 받는 랜돌프 칼데콧의 책들이 삼례책박물관에서 전시된다.

삼례책박물관에서 10월까지

세계적인 그림책의 거장 랜돌프 칼데콧 전시가 삼례 책박물관에서 열린다.

완주군에 따르면 우수 도시를 전시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삼례책박물관(삼례문화예술 내)에서 4월 8일부터 그림책 전시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근대 그림책의 황금기를 연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1837 ~ 1901)의 그림책 작가 3대 거장 랜돌프 칼데콧, 윌터 크레인, 케이트 그린어웨이를 조명하는 시리즈 전시 중 첫 번째 기획 전시다.

랜돌프 칼데콧은 글이 아닌 그림을 주제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형식을 고안

하여 특유의 서민적이고 해학적인 그림을 그려 대중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후대 그림책 작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어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로 칭송 받는 작가이다.

당시 선봉적인 인기를 얻었던 랜돌프 칼데콧은 건강 악화로 39세 짧은 생을 마감하였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미국도서관협회는 1938년부터 해마다 가장 뛰어난 그림책을 펴낸 작가에게 칼데콧의 이름을 딴 '칼데콧 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칼데콧의 그림책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책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아동문학, 그림책이라는 장르를 뛰어 넘어 고전 반열에 오른 랜돌프 칼데콧

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그림책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높이고, 예술적 출판 문화의 발자취를 되짚어 봄으로써 동서와 세기를 넘어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마당이 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는 4월 8일 오후 2시 책박물관에서 열리는 기획전시 기념식에는 참가자 모두에게 랜돌프 칼데콧의 그림 작품을 모은 '캘러리당북' 증정과 전시 기간 중 랜돌프 칼데콧 우드버닝 북디자인 교실을 운영 할 계획이다.

전시 관람 및 체험 교실 참여는 책박물관(070-8915-8131~2)으로 문의하면 되며, 전시는 오는 10월 9일까지 진행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 한지산업지원센터

다나무 활용사업 본격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모 선정

한국전통문화재단 한지산업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6 풀뿌리기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센터는 향후 3년간 국비 18억 원, 시비 2억 7000만원, 민자 6억 4000만원 등 총 27억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다.

센터는 다나무 소재의 생리활성 물질을 이용한 코스메슈티컬(화장품과 의약품의 합성) 시트, 액상 소재 및 제품 개발 공간 조성' 부문에 대해 연구, (주)천안파넬비, (유)한풍제약, (주)바이허브,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함께 다나무에서 추출된 성분과 효능을 이용해 한지 및 스킨케어용 시트와 기능성 화장품 등의 원료를 개발하게 된다.

전주지역 전통지원인 다나무 소재는 우리나라 고유 품종으로 한지의 원료로 쓰인다.

또한 추출물에는 미백 물질과 항산화 및 항염증 세포막 보호, 가려움증 완화, 주름 개선의 효능이 있어 용 · 복합 자원으로써 유용한 가치가 있다.

김동철 원장은 "이번 사업이 다나무 소재에 관한 기술을 앞당겨 전주지역 한지 산업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연구개발 수준을 벗어나 산업체와 협력해 본격적인 사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혜은 기자



석재화가 김기철 화백의 작품

돌가루로 자연의 빛깔을 담아

김기철 화백 전시회 15일까지

무주 최북미술관서 35점

석재화가 김기철 화백의 전시회가 무주 최북미술관(한풍루로 346)에서 개최된다. 전시회는 지난일부터 이달 15일까지로 꽃과 인물, 화조화 등 35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석재화는 색깔이 있는 돌을 곱게 갈아 자연의 풍부한 빛깔을 화폭에 담아내는 그림으로, 돌가루 고유의 색깔이 은은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김기철 화백은 "무주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서 나는 돌을 작품의 주제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림에 맞는 색깔과 질감의 지닌 돌을 찾는 일부터, 쇠질구로 돌을 쪼개 고운 가루를 내는 일, 직접 손으로 돌가루를 뿌려 작품을 완성하는 일까지 장시간 집중이 필요하지만 한 작품 한 작품을 생기를 불어 넣는다는 마음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서화작가협회와 한국미술협회 회원인 김기철 화백은 무주 전통공예공장에서 5년째 작품 활동에 전념하며 한일 문화교류전을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전시회에 참가해 차별화된 작품 세계를 인정받고 있다.

한편 무주군 무주읍에 소재해 있는 최북미술관은 제1종 공립미술관(관람시간 09:00~18:00 / 월요일 휴무 / 관람비 무료)으로 올해는 [김기철]展을 비롯해 11번의 전시회를, 미술과 문화교실 등 4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4월 6일>

▷쥐띠
46년생: 동기간과 의견충돌이 생길 수 있는 운.
60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늦게 움직이면 놓치게 되니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2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 심성에 주의하고 무리하지 마라.
84년생: 금전운은 좋아하나 타인과의 관계에는 좋지 못한 운이다.

▷소띠
49년생: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
61년생: 매사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좋은 결실.
7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세워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운이다.
85년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 좋은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편법을 사용하지 말고 정식으로 추진하라.
62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4년생: 지나친 욕심은 재산을 불러오나 적당히 선에서 마무리 하라.
86년생: 어려워도 도와줄 사람이 생기는 운.

▷토끼띠
51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시비가 따르는 운.
63년생: 정신적으로 뚜렷하고 맑지 않으니 중요한 사항이나 결정은 다음으로 미루거나 타인의 조언을 구하라.
75년생: 매사 용과 마음을 겸허히 하고 인정사정 대치하는 것이 필요.
87년생: 다른 사람과의 시비구설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긴다.

▷용띠
52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니 손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76년생: 사소한 일에 신경이 곤두서는 운.
88년생: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천천히 전진하면 좋은 결실.

▷범띠
53년생: 타인과의 관계에서 한사람의 편을 들면 심함이 악회되니 주의하라.
65년생: 손조수가 따르는 운이니 먼저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
77년생: 작은 소망은 이루어지나 큰 소원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8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빛을 발하며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운.

▷말띠
54년생: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신경 써라.
66년생: 식욕이 있는 운이니 모임이나 식사약속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78년생: 매사에 주의할 요하는 운이다.
90년생: 뒷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

▷양띠
55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이 생길 수 있는 운.
67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
79년생: 금전운은 좋지 않으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준비한 것의 결과는 좋은 운이다.
91년생: 문서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 좋은 운이니 긍정적으로 진행하라.

▷원숭이띠
56년생: 인덕이 따르니 다른 사람으로 인해 일이 성사된다.
68년생: 공과 시중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80년생: 너무 넘쳐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라.
92년생: 자신의 목표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지만 안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닭띠
57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는 운.
69년생: 진적으로 손해가 따르니 투자나 투기는 불리한 운.
81년생: 뒷사람의 덕이 따르는 운이니 말과 행동을 분명하게 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하겠다.
93년생: 자신의 실수로 인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는 운.

▷개띠
48년생: 태양이 밝게 비추니 의견양립한 운이다.
60년생: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 될 수 있는 운.
72년생: 인덕이 따르고 식욕이 들어오니 모임이나 식사약속을 하기에 좋은 운이다.
84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 기관지계통의 질환을 조심하라.

▷돼지띠
47년생: 구설수 시비가 발생하나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독단행동을 삼가라.
59년생: 금전운이 좋지 않으니 투자나 투기는 삼가라.
71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의 조언을 구하라.
83년생: 시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립은 피하라.